

「방위산업 육성과 기계산업」 주제로 조찬강연회 열려

기계산업과 연계한 방산 현실 인식과 방산 육성 정책 방향 모색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6월 21일 조선호텔에서 황해웅 한국기계연구원장(前 국방과 학연구소장)을 초청해 「방위산업 육성과 기계산업」을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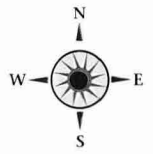
정부 및 관련기관, 학계, 방산업체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황원장은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산업이라는 인식아래 국방비의 3% 이상을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해 저변을 확대하고, 무기체계 직구매를 지양하고 국내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을 적극 추진하면서, 방산제품 수출 증대를 위하여 군소요에 바탕을 둔 독자적 전략품목을 적극 개발하고 수출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조하에 연구개발 및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소재와 생산

기계기술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배일성 방위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개최 인사를 통해 “작금 55년 동안 막혔던 분단의 벽을 넘어 남북한 두 정상에 이룬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협력 등 다양한 교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당장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국민들의 안이하고 성급한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 싸인 특수한 상황으로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전쟁억제력에 의한 안보태세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기계산업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환경과 경제를 발전시킨 토대를 구축했고 앞으로도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방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 3 회 해상무기체계발전 세미나 열려

향후 주요 핵심기술과 해상무기체계 발전방향 제시

국과연

제2체계개발본부는 군사과학기술학회 후원으로 제3회 해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를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96년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격년제로 개최되어 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는 서영길 해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국방부, 해군, 방산업체, 학계, 민간연구소 및 국과연의 무기체계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조용수 국과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새천년에는 첨단군사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를 예상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적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연구소 창설 이후 30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학·연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체계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을 모아 미래 첨단 핵심전력을 개발함으로써 대양 해군력 건설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면서 무기체계 전문가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심태보 제2체계개발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해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76년 진해에 창설한 이래 돌고래, 함포 등의 개발 및 생산 배치와 최근에 개발한 백상어, 예인음탐기 및 어뢰음향대함체계의 성공적 개발완료는 각계 무기체계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라고 역설하면서, "21세기는 정보화와 지능화 시대에 걸맞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영길 해군사관학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간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이 해군의 전비태세 향상에 밑거름이 되어 지난해 연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치하하고, 21세기 해양경쟁의 시대에 해양권익보호와 해양방위가 국가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핵



심"임을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요구되는 대양 해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가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기술교류의 장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천년 해상무기체계 연구개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아래 백기봉 해군 전투발전단장의 해상무기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비롯해 방산업체, 학계, 민간연구소 및 국과연 등 총 6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세미나 둘째날에는 함정기술, 수중탐지, 전투체계, 수중무기 및 시험평가 분야 등 4개 분과에서 총 60편의 기술논문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수중탐지/전투체계 분과에는 지난해 연평해전에서 위력을 보인 전투체계 관련 기술을 확인하듯이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새천년 21세기의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양 해군력 건설을 위한 군사과학기술 발전은 필연적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과 주요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을 위하여 연구소를 중심으로 학계, 산업체 및 민간 연구소의

전문가 집단간에 활발한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해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는 훌륭한 기술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

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군사과학 기술 전문가를 발굴하고 유사 분야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었으며, 향후 주요 핵심기술과 해상무기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다.

연합정밀,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2공장 준공식 개최

연합

정밀(주)(대표 김인술)은 지난 6월 2일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2공장(충남 연기군 전동면 소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창립기념행사에는 배일성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근영 천안시장, 성무용 천안상공회의소장 및 관련업체 임직원 일동과 연합정밀 직원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창립기념행사에서는 우수협력업체와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및 진급자 명단이 발표되어 그 기쁨과 의의가 더욱 돋보였으며 창립기념행사 후 참석자들은 제2공장으로 이동하여 제2공장 준공기념식과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연합정밀은 1980년 6월 설립되어 '83년 1월 군납업체로 등록한 이후 '84년 10월 군납우수업체로, '85년 10월에 개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조달본부장과 국방부장관 감사장을 수상하였으며, '87년 6월에는 우수 기술개발 업체로 선정되어 철탐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91년 1월에 천안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동년 11월 전차 및 장갑차용 신형인터컴 VIC-7K를 개발하고, '95년 5월 방산업체 지정을 받았다.

'96년 7월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동년 11월에는 1공장에 케이블 및 전선제조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97년 2월 ISO 9001 인증서를, 동년 5월 KS인증서를, '98년 6월에는 UL인증서를 취득하

였다.

'98년 4월에 EMI차폐 코넥터를 개발하였으며, 같은해 6월에는 수륙양용 장갑차의 인터컴을, 11월에는 SPIDER용 케이블조립체 38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98년 9월에 이달의 무역인상을, 11월에 수출 100만불탑을, '99년 12월에 연구개발 우수업체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1공장의 전선, 기계부문 생산시설 확장과 이번에 2공장 준공 및 금형공장 신설 등 생산능력을 보강하고 지휘용 장갑차의 인터컴을 개발, 기술시험 중에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은 부품 176종을 개발중에 있다.

연합정밀은 창립이래 제품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장비, 구성품, 부품 등 총 2600여종을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는 무려 350억원에 이르고 있다.

